

“당대표 공약 손바닥뒤집기... 탄핵감”

천정배 의원, 안철수 대표
합당강행 관련 쓴소리
호남 의원들 “합당시 탈당”



갈 것인가. 저는 명백히 후자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당원투표와 관련해선 천 전 대표는 “안철수 대표 사비로 하는 거 아니다. 돈도 몇 억 든는데 그 돈은 국민 세금으로 낸 국고보조금에서 나온 돈”이라면서 “자기들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언뜻 보면 합법적인 것 같지만 실제 동기는 불순한 것이다”라며 “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호남 민심을 알기 위해 전당원투표를 한다는 안철수 대표의 주장과 관련해 천 전 대표는 “호남 민심을 진짜 알고 싶으면 그냥 간단하게 여론조사만 돌려봐도 된다. 그 비용도 얼마 안 든다. 그런데 지금 이 난리를 하면서 전 당원 투표를 하고 있는 거다”라면서 “지방선거를 5, 6개월 앞두고 있는데 호남의 지방 의원들이 합당을 결사반대하고 있다. 만일 합당이 이루어진다면 모두 다 탈당하겠다

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다. 차라리 무소속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보다 더 명확한 민심이 어디 있는냐?”고 반문했다. 천 전 대표는 “합당이 옳냐, 그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안철수 대표의 신임을 묻지 않는가? 이런 일종의 당원 협박 행위”라며 “이거 찬성 안 해주면 내가 물러날 테니 찬성해라, 이것이다.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 독재자들의 수법”이라고 덧붙였다. 천 전 대표는 “과거에 오세훈 서울 시장이 주민 투표할 때 3분의 1이 안 돼서 개표도 하지 못했다. 3분의 1 정도는 투표를 해야 그게 표심이라는 게 드러나지 극단적으로 잘해야 지금 한 20여 퍼센트나 하지 않겠냐?”면서 “당원들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체 의사 표시를 안 했다고 본다”며 “(전당원투표의)명분과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천 전 대표는 “저는 광주 서구를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을 보고 국민의당으로 뽑아준 국회의원이다. 그런데 그 사람을 무슨 바른정당과 합친 새로운 당의 국회의원으로 제 호적을

바꾸라는 것”이라며 “제가 갑자기 바른정당의 국회의원 된다고 그러면 저는 그런 국회의원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때문에 바른정당과 합당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천 전 대표는 “바른정당과 합당하면 바로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소멸할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선도 정당(캐스팅보트)이다. 의석 구조가 국민의당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면서 “그 힘을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그리고 역사가 요구하는 지금 개혁과 적폐청산의 길을 깨끗하게 가면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길이 우리의 길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져 통합을 해야 한다는 안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천 전 대표는 “안철수 대표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 바른정당 사람들이 안철수 대표 손아귀에서 노는 사람들이냐?”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김진성 기자

천정배(사진) 국민의당 전 대표가 안철수 대표의 합당 강행과 관련해 “당대표 선거 TV토론에서 안철수 대표는 당 대표가 되면 바른정당과 통합하지 않는다” 선거 연대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했다”면서 “지금은 180도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당 대표 선거공약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있는 것이다. 이런 탄핵감이다”라고 비판했다. 천정배 전 대표는 지난 29일 아침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면서 “촛불 국민 혁명 이후에 적폐를 청산하고 각 부문에서 강력한 개혁을 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열망”이라면서 “바른정당과의 합당으로 과연 적폐청산이나 개혁의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 방향으로 개혁을 꾀하고 적폐청산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북도청 중무식 지난 29일 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2017 전북도청 중무식에 송하진 도지사가 이날의 으뜸 도정성과 새만금 챔버리 유공자 표창, 국·도정 업무평가 표창을 하고 있다.

대중교통 운수업체 환경 개선 이호근 도의원 감사패 받아

전북도의회 이호근 의원(고창 1·사진)은 지난 29일 고창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제공과 운수업체의 열악한 환경개선 공로로 (주)대한고속(대표이사 김재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의원은 평소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남다른 관심으로 정책을 제안했으며, 대한고속 고창영업소와 고창지역 대형버스 운송사업자의 열악한 환경을 듣고 이를 해결해 업체 노조와 사업자로부터 감사패를 받게 됐다. 이 의원은 그 동안 고창지역 대중교통 중산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활발한 현장의정활동을 전개했으며 2017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에서 농산업 육성 및 장애인·여성·아동의 권익과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진성 기자



‘명예의 전당’ 건립 순항 | 도, 태권도 성지화 탄력받아 기부금 확보·수시예산 배정

전북도는 지난 29일 태권도단체(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의 기부금 이행과 수시예산인 국비가 배정되어 태권도인들이 열망하는 태권도 명예의 전당을 건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사업주체인 태권도진흥재단에 기 송금된 지방비 30억원, 국기원 20억원(12월 15일 송금), 대한태권도협회 30억원(12월 20일 송금), 국비 배정(12

월 29일 송금)되어 총 150억원이 확보됐다. 이에 따라 문체부에서는 태권도 상징과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개념 재정리를 통해 태권도 명예의 전당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중앙정부(기재부, 문체부)와 지역정차권, 태권도인들, 전북도와 무주군, 태권도진흥재단이 함께 노력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김진성 기자

도 관계자는 “태권도 본연의 가치와 철학을 보존 발전하는 태권도 상징공간인 태권도 명예의 전당과 지난 7월 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가 개발 및 보급되면 명실공히 태권도원이 태권도 성지로서 재 모임을 갖추어 방문객 증가 등 태권도원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원자력발전소 지방세법 개정하라”

장명식 도의원 1인 시위



전북도의회 장명식(고창 2·사진) 의원은 지난 29일 오전 9시부터 2시간동안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원자력발전소 관련 지방세법을 현실성있게 개정하라”며 1인 시위를 펼쳤다. 이어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김병관 의원과 면담하고 원자력발전소 관련 지방세법이 현실성있게 개정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장 의원은 “지난 2015년 정부는 영광원자력발전소 주변 30km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해 고창과 정읍, 부안 등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획구역 내에 방호물품을 준비하고, 주민구호와 대피시설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매우 큰 금액의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고창 등은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그야말로 말뿐인 비상계획구역”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영광원자력발전소는 발전소 소재 행정구역이 영광군이라는 이유로 영광군과 전라남도에만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원자력백서’에 나와 있으며, 영광원자력발전소는 최근 10년간 전남과 영광에

지방세를 3,310억원 납부하고 있다. 이에 장명식 의원은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위험은 행정구역을 가리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는 고창군 주민들이 더 보고 있어도 관련 세금은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면서 1인 시위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장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고창군 관내 마을을 순회하며, 원자력발전소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관련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기자회견과 도의회 제348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이를 알렸다. 아울러, 지난 15일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진선미 의원을 방문해 5,000여명 이상이 참여한 지방세법 개정 주민 서명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장명식 의원은 “지속적으로 원자력발전소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를 함께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민주당 한희경 비례대표 도의원 승계

최은희 전 도의원 퇴직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북도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은희 전 도의원이 2017년 12월 22일자 퇴직함에 따라 12월 27일에 비례대표 전북도의회의원후보자명부 추천 순위 3번 한희경(54·사진)을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제2항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희경 도의원은 원광대학교 의상학과 졸업, 전) 민주당 전북도당 전주완산갑지역위원회 전국 대의원, 전) 민주당 전북도당 여성위원회 여성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